

물도 '답'을 알고 있다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글_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대구의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고 꼭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온갖 사회 문제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왜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현대 과학과 기술이 아니면 그 핵심조차 파악할 수 없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해서 원전 폐기물 처리장과 휘발유 첨가제 문제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두 그렇다. 결국 과학기술중심사회는 충분한 과학적 상식을 갖춘 국민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뜻하는 것이다.

신비주의가 판치는 사회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런 과학기술중심사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양이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작은 책이 1년이 넘도록 서점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 책에 실려있는 얼음 결정 사진들은 하나 하나가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고 할 만큼 곱고 아름답다. 그런 사진을 통해서 자연에 숨겨진 오묘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나무랄 것이 없다. 더욱이 그런 책을 만들어 낸 사람의 부인이 우리 동포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일 수도 있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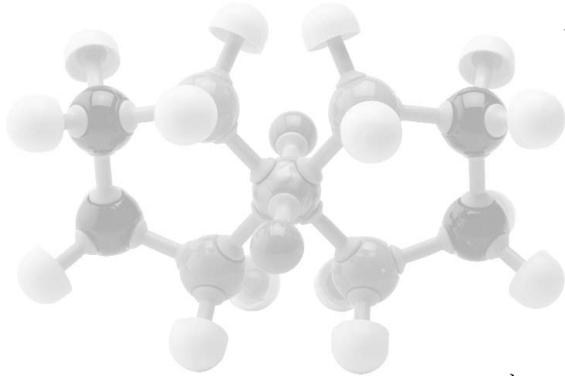
사진들이 “세계 최초로 찍은 것”이라는 영터리 주장 정도는 상업성을 위한 애교로 보아 넘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다. 신비로운 육각형 얼음 사진에는 ‘사랑’이나 ‘감사’의 뜻이 담긴 좋은 제목이 붙어있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사진에는 ‘멍청이’나 ‘죽일 놈’ 같은 험한 제목이 붙어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물이 그런 글이나 말을 알아듣고 결정의 형태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물이 사람의 말과 글, 심지어 음악까지 이해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물이 그런 정보를 이해하고 간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해주는 파동이 물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 사람의 의식과 물질이 파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로 통한다는 것이 저자의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주장이다. 저자의 그런 주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1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지켜온 책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물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초능력’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물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물론 찾을 수 없다. 수많은 생물 중에서 물이 왜 하필이면 아득한 옛날에 물이 싫다

고 육지로 도망쳐버린 인간의 말과 글과 음악을 알아듣기로 하였던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런데 물은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법석을 부려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영어까지도 능숙하게 알아듣는다고 한다. 그러니 지천으로 널려있는 물보다도 못한 우리가 지금껏 ‘만물의 영장’이라고 뽑았던 일을 부끄러워해야 할 지경이다. 결국 이 책은 ‘파동’과 ‘결정’이라는 두 개의 과학 용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영터리

신비주의의 결정판인 셈이다. 물이 한 글자를 알아본다는 주장은 우리 나라에서의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팍한 상술에 불과하다.



신비주의를 확산시키는 공영방송

그런 알팍한 상술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의 공영방송이 그런 신비주의를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12월 17일에 방영된 「수요기획: 물에 대한 특이한 보고서」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현대 과학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물리학자와 생물학자는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고 뚝뚝하게 주장하는 프로그램에 놀라움으로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도 알고 있는 소리굽쇠의 공명이 느닷없이 ‘우주의 신비’로 둔갑하는 순간에는 과학의 시대에 걸맞은 최소한의 상식과 책임감을 기대했던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박한 꿈이었나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 분자의 정체도 모르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1611년에 발표해서 고전(古典)이 되어버린 「육각형 눈송이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17세기의 석학이었던 르네 데카르트와 로버트 후크의 역사적 업적도 완전히 무시되었다. 미국의 농부 윌슨 벤틀리가 1931년에 찍어서 발표했던 5천 장의 눈 결정 사진과 1954년에 일본의 우키지로 나카야의 귀중한 업적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상관이 없었다. 물론 주사터널현

미경을 이용한 최근의 본격적인 얼음 표면 연구들도 사라져 버렸다. 오로지 신비주의를 앞세운 저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뚝뚝하게 방송할 수 있는 우리 공영방송의 배짱이 놀라울 따름이다.

정면으로 과학을 부정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애써 과학적 수단과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신비주의의 특징이다.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애써 보여주었듯이 얼음의 표면은 규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그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물론 얼음이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어떤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어떤 모습을 찍고 싶은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었다. 순진한 어린아이까지 동원한 상업 전술에 속절없이 속아넘어간 공영방송 제작진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정치 문제에 대한 편파 보도는 그 영향이 한시적이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정권이 바뀌면 그런 진실은 밝혀지지 마련이다. 그러나 과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신비주의를 확산시키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공영방송이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되면 그 폐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 과학기술중심사회는 공영방송의 과학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모양이다. 물이 답을 알고 있는 사회는 과학기술중심사회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주장에 매혹되는 것을 모른 채하면서 외치는 이공계 살리기도 의미가 없다. ☹

